

농어촌공사 전남본부, 4대호 통수 시작..."3만ha 농경지 물 걱정 뚫"

[심진석]

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전남 최대 농업용수원인 '4대호'의 용수 공급을 시작했다.

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0일 장성호 통수를 끝으로 나주호·장성호·담양호·광주호 등 4대호의 통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
영산강 개발사업의 핵심 시설인 4대호는 총 유효저수량 3억t 규모로, 광주광역시와 나주시, 장성·담양·함평·영암 등 전남 일대 약 3만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자원 시설이다.



나주호 통수. [사진제공=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]

현재 모내기가 한창인 지역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전남지역 저수 상황도 양호한 편이다.

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78%, 4대호 평균 저수율은 72%를 기록했다. 이는 평년 대비 114% 수준으로,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.

다만 공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을 감안해 단계별 용수 공급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.

필요 이상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

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.

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"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선제적인 수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@asiae.co.kr